

사설

주5일근무제 포교대책 수립

7월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될 주5일근무제는 한국사회에 '여가시간'이란 화두를 던지며 생활구조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불교계가 이런 변화에 주목, 이를 포교의 큰 전환점으로 삼고자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반가움이 앞선다.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분과위가 '주5일 근무 패턴'에 대한 공동세미나와 함께 현장답사 및 조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종합 자료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이에 '보고 느끼고 즐기며 부처님 바로 알게'란 과제를 붙인 것 역시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본지 부타뉴스를 비롯한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사람들은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여행과 체험'이라 했으며 불자들은 적극적인 신생활을 다짐하고 있어 '주 5일 근무제'가 가져올 불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갖게 된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축은 불교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깊은 산속의 산사는 여행과 체험의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현대화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여러 도심 포교당에서는 공연장이며 전시실 등 일반의 관심에 부응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여기에 각종 지역축제와 주말농장 등을 연계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5월과 6월에 있을 월드컵 대회 때의 템플 스테이도 좋은 경험으로 살려 이때 확보된 인프라를 계속 활용하는 일도 권장한다.

포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과 충분한 에너지를 얻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잠재적 불자들까지도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불교에 다가 설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찰 자연환경 史記 되도록

숲은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만 생명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숲은 영적(靈的)이며 생명적인 공간이다. 그러기에 불교는 애초부터 생명의 종교로 출발했다. 돌이켜보면, 수행자의 삶은 당대의 정신적 지표였고, 사찰의 자연환경은 당대 자연환경의 지표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참으로 열악스럽다. 절집 스스로가 저지른 자해(自害)와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被害)로 인한 환경 파괴 때문이다. 소위 '명찰'로 소문난 절입수목, '선지식'이 머무는 절집일 수록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16일 발족한 사찰생태연구소는 반 생명적인 사찰환경의 변화가 곧바로 수행환경임을 직시하고, 사찰 환경문제의 한 해법을 '자연생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두고 있다.

우리 민족은 대체적으로 기록해서 남기는 일에 무관심해왔다. <삼국유사>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에도 당시의 자연 상황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정보화시대인 지금도 사찰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소가 전국 108곳 사찰의 환경기록을 위해 10년 원력을 세웠다고 하니 그 불사야말로 대(大)불사라 여겨진다. 이 불사는 1세기, 10세기... 그보다 더 먼 미래에 21세기 한국 사찰의 자연환경 사기(史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미래 세대들에게 오늘의 사찰환경을 전해주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파괴되었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해안을 전하길 바란다.

선학원 수계자 인정 난색

조계종, 단일계단 원칙·고시법 등에 위배돼

지난 6일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선학원의 2000년도 자체 수계자 문제가 양측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학원은 2000년 자체적으로 1주일간의 행사교육을 통해 30여명의 행사자에게 사미(沙彌)계를 주고, 또 구족계 수계산임을 통해 30여명의 사미(沙彌)에게 구족계를 수여한 바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계종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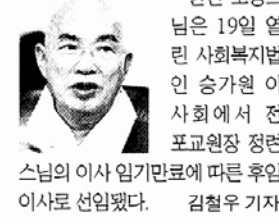
조계종은 이달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선학원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현재까지는 선학원의 자체 수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그 이유로 조계종 관계자들은 우선 20년간 단일계단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이를 인정할 경우 교육법이나 고시법, 계단법 등 중헌종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계

종은 그 단적인 예로 98년 종단사 때 태 통도사가 자체 수계를 했지만 결국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20일 열린 제22기 행사교육원에서 작년 10월 이전 인사 행자로 제한돼 있는 입교자격요건을 선학원 행사에게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선학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했다"며 "나머지 문제는 종헌종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원칙'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선학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학원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단일계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00년

도 수계자들을 구제해주지 못할 경우 양측의 합의정신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내부 반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학원 차상엽 연구과장은 "조계종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전달해 오면 이사회 등을 거쳐 선학원의 방침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측이 충분히 공감하는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ews.com

도영스님 승가원 이사선임 경찰청 경승 취임법회



경찰청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沙仁)스님을 경찰청 경승으로 위촉, 21일 경찰청 법당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도영스님은 19일 열린 사회복합인사승가원 이사회에서 전 포교원장 정려스님의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이사로 선임됐다. 김철우 기자



태고종은 25기 수계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 130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오른쪽)이 20일 25기 수계자에게 승려증을 주고 있다.

태고종 수계자 130명 승적

선암사 연수교육, '先교육 後득도' 강화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8-20일 3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25기 수계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수계자 130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오른쪽)이 20일 25기 수계자에게 승려증을 주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지난 해 8월부터 3차에 걸친 예비교육과 합동교육에 참여한 수계자와 비대위측에서 별도로 선암사에서 실시한 행사교육 참여 행자가 함께 동참

해 화합종단의 의미를 깊게 했다. 지난해 태고종은 1년여를 끌던 내분으로 수계산임을 불가피하게 따로 진행했다. 태고종은 종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교육(先教育) 후득도(後得度)제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매년 합동득도수계산임에 참가하는 행사들에 대한 승적 발급 기준을 강화시켜 오는 2004년까지 총림학교(동방불교대학) 선암사승가대학을 졸업하는 수계자에 한해서만 승적을 발급할 방침이다. 이경숙 기자

2002월드컵 성공기원 전국 불교대법회 개최 4월9일 국립극장서

2002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 성공을 기원하는 2002월드컵 성공기원 전국 불교대법회가 열린다.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하는 2002월드컵 성공기원 전국불교대법회가 4월 9일 오후 2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조계종 스님 1,200명과 태고 천태 진각종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 400여명, 체육계, 월드컵 참가국 주한 외교사절 50여명 등 총 1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김철우 기자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공사

5월29일 준공, 12월초 개원

동국대 송석구 총장은 20일 조계종 제153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일산 불교종합병원 현충보고를 통해, 5월 29일 준공한 뒤 12월초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총회의원 스님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

산 불교병원의 지역적 위치가 일산지역 80만을 포함하여 파주 김포 등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100만 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교계에 서 열려하는 것과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하지만은 않다"며 "병원건립에 들어가는 1500여억원의 자

금문제도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현재 불자들과 문인들의 약정액이 545억원에 달하고 현금도 280여억원이 들어와 있다"며 "병원 건립에 후원해준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은 대지 8885평에 건평 3,041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2층이며, 총 병상수는 양방 600, 한방 200, 중축 200 등 총 1000병상을 갖춘 종합 병원이다. 김원우 기자

지리산살리기운동 구체화

인드라망, 올사업 발표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는 1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2002년 정기

총회를 갖고 새해사업기조 및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드라망은 올해 사업기조를 '농공동체 운동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준비, 지리산 살리기 운동의 구체화' 등에 두고 인드라망 생협 법인화, 불교귀농학교 공동문화

결성, 생태사찰 연구모임 결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인드라망은 일해, 해자 스님과 김기병 전 포교단장 등을 새 공동대표에 위촉했다. 강유신 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Peace' (현대 만평)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people and the text '불자들 한마음으로...' (With the hearts of all Buddhists...)

Advertisement for 'We receive reports' (케보받습니다)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Buddhist news and a list of authors.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창립 10주년 기념 및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고승 명인 서화 도예전

귀의삼보하옵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회는 그동안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의 관심과 후원으로 안으로는 중단개혁운동, 밖으로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본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고승 명인 서화 도예전'을 준비 하였습니다. 이번 '서화 도예전'은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공간이 될 본회 회관건립 불사에 뜻을 함께해 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원로 중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큰스님들과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고승 명인 서화 도예전'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정 화 합장

Event details box: ■ 일 정 불기 2546(2002)년 3월 27일(수) ~ 4월 2일(화) ■ 장 소 : 인사동 덕원 갤러리 4층 ■ 개막식 : 3월 27일 오후 2시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신문, 불교방송,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 문 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처 ☎ 725-4277

■ 주요 작가 서용, 석주, 원담, 석정, 혜정, 원웅, 보성, 중광 외 강암 송성용, 남농 허건, 월전 장우성, 남정 박노수, 옥산 김옥진, 아산 조방원 외

